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0>



수능시험에서 풀려난 아이들에게

“가서 네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여라.” 어머니 야소다라가 이 말만 하지 않았다면 라훌라는 스님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라훌라에게 출가생활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형벌과도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정반왕의 손자, 석가모니부처님의 외아들... 자기 이름 앞에 붙은 이런 수식어만 보더라도 자신이 저 여타의 불품없는 수행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라훌라는 심하게 반항하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청소년들도 사춘기 시절에는 골게 자라주지 않는 법인데 저는 라훌라의 그 보족한 심보가 심분 이해됩니다. 왕자였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빈 밥그릇을 들고 아침마다 밥을 빌러 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들 자기 앞에서 허리를 굽혔는데 이제는 하루 먼저 즐거하였다고 고개를 바짝 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사리불 존자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응석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철모르고 반항하던, 엉덩이에 풀난 송아지 한 마리가 가사를 걸치고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순간 라훌라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후 얼마나 조용하고도 치열하게 수행을 이어갔는지 그에게는 '밀행(密行) 제일'이라는 수식어가 새롭게 붙었습니다. 구태를 벗어버린 라훌라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담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숫타니파타>를 보면 부처님은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라훌라에게 주고 계십니다. “라훌라여, 여진 이와 늘 가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여진 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햇불을 비취 주는 존재이다. 너는 그런 이를 존경하고 있는냐?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일상의 일들은 너무나 자극적이다. 네 자신의 눈과 귀, 코와 혀와 몸을 잘 단속하여라.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시끄러운 곳을 떠나 고요한 곳을 자주 찾아라. 음식에 대하여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옷이나 음식, 그리고 자리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 세상의 일들에 쓸데없는 미련을 품지 말라.

‘수험생의 특권’이라는 묵은 먼지 털어내길 그래야 멋진 가르침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좀처럼 자신을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았습니까. 결국 라훌라는 마음이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졌고 경전을 보면 이런 라훌라 때문에 아주 많은 이들이 마음고생 받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그런 라훌라를, 밥을 씻은 대야를 꺼가고서 일깨워주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밥 씻은 물이 담겼던 대야는 아무 쪽에도 슬모가 없다. 향긋한 밥을 담으면 대야를 깨끗하게 씻고 또 씻어야 한다.” 라훌라는 그런 아버지의 따끔한 지적에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그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내 마음은 결국 더러운 물이 담겼던 대야에 불과했던 말인가. 내 마음이 그렇다면 결국 내 자신도 그런 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 “나는 이전에는 왕자였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지내온 결과 지금 자신이 얼마나 가차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반왕의 손자는 이제 없습니까. 석가모니의 외아들도 이전 없습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네 몸을 항상 살피라.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 육체의 포장을 열어서 그 속에 담긴 진실한 내용을 잘 살펴내 외양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지라. 네 마음을 나무 타는 원숭이처럼 내버려두지 말고 한 가지 대상에 집중시켜라. 네 마음에 오만이 도사리고 있거든 어서 털어버려라. 오만을 없애면 너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 수험생 여러분, 이 글이 여러분의 손에 닿을 즈음이면 그 지옥 같은 대입시험이 끝나있을 것입니다. 수험생이라는 신분은 ‘행벌’이기도 했지만 온갖 인간적인 의무와 도리에서는 ‘면책의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책상 위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속의 ‘수험생의 특권’이라는 먼지도 어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털어내는 사람일수록 미래를 위한 더 멋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켈부지 왕자님에서 인적이 완성된 한 사람의 멋진 청년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미형(통국역경원 역경위원)



본래면목을 잊어버려 본래면목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일우 스님. 스님은 그 방법으로 ‘평상심사도(平常心是道)’를 일상사에서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일우 스님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는 일상을 허덕이게 한다. 지지고 볶고, 세간의 고단한 삶 역시 자신을 용어때기는 때만가지다. 선종의 출가사문은 그런 불자에게 “수행해라” “놓으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고 놓으란 말인가. 노사(老師)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물었다. ‘도대체 재가불자들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했다. ‘노동을 선으로 삼으면 노동선(勞動禪)이고, 염불로 여기면 노동염불이다’였다. 11월 11일, 경북 청도 보현사 고불당(古佛堂)에서 세수 79세의 일우 스님(태고종 원로회의 의장)을 뵈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 집니까?” “행복을 구하면서도 행복을 손에 짚 줄 몰라. 좋은 것을 구하면서도 좋은 것을 찾으려는 방편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야. 행복을 가져오는 방편에는 참선, 염불, 간경, 절 같은 수행법들이 많이 있어. 그 가운데 뭐든지 하나를 잡아야 해. 그에만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열리게 돼. 염불이든 참선이든 10분이든 10분, 1시간이면 1시간씩 하루 일과로 잡아야 해. 그렇게 생활화가 되면 신심이 굳건해져, 죽을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무슨 수행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스님에게 다시 여쭈었다.

신심은 수행의 모체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면 돼. 비유를 들어볼까. 팔만대장경은 곡식과 같아. 쌀 보리 조 콩 팥 같은 것이 팔만대장경에 다 들어있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 쌀이든 콩이든 손에 움켜쥐야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모두 다 손에 쥘 생각은 하지마. 물론 몸에 다 이로운 것들이지만, 하나를 잡아야 해. 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염불을, 글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간경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사실 백천 가지 모두가 방편문인데,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이 있었던. 걸어가든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가든 성불이란 목적은 같아. 온갖 곡식은 다양한 불교 수행법이 되는 거고, 근기를 찾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안다는 의미지.” 이번엔 간화선 수행에 대해 물었다. “신심, 의심, 본심이 간화선 수행에서 중요합니다. 재가불자들이

이 세 가지 마음을 잘 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가 신심이야. 신심이 없으면 참선이든 염불이든 간경이든 되는 것이 없어. 신심을 잘 내려면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야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붙어, 실력이 붙지 않으면 잡념이 일어나지. 신심이 굳건하면 수행이 순조롭게 이어져 나가. 신심이 수행의 모체이니, 이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어.” 그럼, 불교의 핵심이 되는 연기법 수행을 일상사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요? 스님은 수행을 잘 하면 인과를 초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말씀이다. “인과를 해탈해야지, 인과에 얽매이면 안 돼. 그런데, 심상(心相)이 심상(心相)에 있고 있어. 심상을 깨달은 불자는 인과가 진공묘유(眞空妙有)임을 알게 돼. 인연을 받고 안 받을 수 없는 진공묘유인 이치를 알게 되는 거지. 부처 행세를 하면 부처가 되고, 개 행세를 하면 개가 되는 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야. 인과법은 이처럼 진공묘유에서 나와, 바로 본심(本心)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본심으로 인연도 여원(緣圓)이 열릴때, 참선에서의 의단독(疑團獨露)이. 넘어서는 것. 인연도 참선도 석가도 조사도 해탈도 모두 다 뛰어넘어서야 하는 거지.” 최근 재가불자들에게 부각되고 있는 계율수행에 대한 질문도 했다. “출가든 재가든 계율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승보살계에는 48계목이 있는데, 이것 모두를 지키려면 한결같은 걸을 수 없을 거야. 걸을 때 발

Advertisement for 'Sachal' (사찰) Chinese language course. Title: 사찰에서 정통 '중국어' 회화 강좌!! (Sachal Authentic 'Chinese' Conversation Course!!). Features: 중국어를 공부하시려는 분, 이미 공부하고 계시는 분. (For those who want to study Chinese or already have). Course details: 강좌시작: 제1기 2005년 12월 5일(월), 3개월 과정: 매주 (월·금요일) 2회, 시간대: 18:30 - 19:30(60분). Location: 장소: 아미타사 (종로3가, 비원 앞). Instructor: 강사: 조송자 교수. Fee: 수강료: 월 5만원 (교재대 포함). Contact: 문의: 아미타사. Address: 서울시 종로구 외룡동 69번지 (우)110-360 ☎ 02)745-3351, 3352 / 본사: 강원도 망경산사 033)374-8007, 9007.

Advertisement for 'Aroha' (아로하) health food. Title: 웰빙 라이프 (Wellbeing Life). Product: 아로하, 향적당 (Aroha, Hyangjeokdang). Description: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Aroha, a health food product produced by Master Janghye-myeong after 15 year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research and microorganism (enzyme) research). Benefits: 신진대사 활성, 장내 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Improves metabolism, gut flora, and body constitution). Target: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Health food for a healthy life for modern people). Price: 아로하: 1개월분 (270캡슐) 12만원, 향적당: 1개월분 (270캡슐) 24만원. (Aroha: 1-month supply (270 capsules) 120,000 KRW, Hyangjeokdang: 1-month supply (270 capsules) 240,000 KRW). Contact: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Recruiting nationwide small-capital franchisees (it's even better if you're a Buddha's disciple)). Address: 본사: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2동 1219, 공장: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Website: 홈페이지: http://www.sunnong.co.kr, Phone: 소비자상담실: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하루 10분 수행’으로 인과에서 벗어나라

밑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거지. 계의 근본은 청정 본심으로 돌아가려는 데 있어.

가령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목의 경우,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해 방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목이야. 사실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야. 계율의 근본은 청정심을 배양하는 거야. 청정심만 길러지면 자연히 계는 완성되는 거지.”

그렇다면, 재가불자들이 계를 지키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

계의 근본은 청정심 회복

“삿된 마음을 버려야 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고 생활에 지장이 와, 거짓말을 잘못했다는 쇠고랑치고 형무소로 가기 십상이지.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모든 것이 나빠지는 원인이 돼. 청정한 마음, 청정한 계를 지키므로써 모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지.”

불교수행의 고갱이는 청정한 자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일우 스님. 지계행의 의미에 대해 스님에게 다시 물었다.

“지계행이 없으면 청정해질 수 없어. 물이 탁할 때 바람이 불면 안 돼. 바람이 가만히 있어야 흙탕물이 가라앉아 물이 청정해져. 욕심바람, 성내는

바람, 거짓말 바람, 사치 바람 같은 팔풍(八風)을 사람을 유혹하는 나쁜 조건을 만들어 내거든. 유혹이 바람이 되고, 그 바람이 파도가 돼 흠탕물을 만드는 거지. 계율은 잡념을 잠재우는 도구야. ‘화경청정지목(和敬淸淨之默:화합과 공경으로 청정해지면 마음은 자연히 고요해진다)’은 계율이 모든 행위의 지침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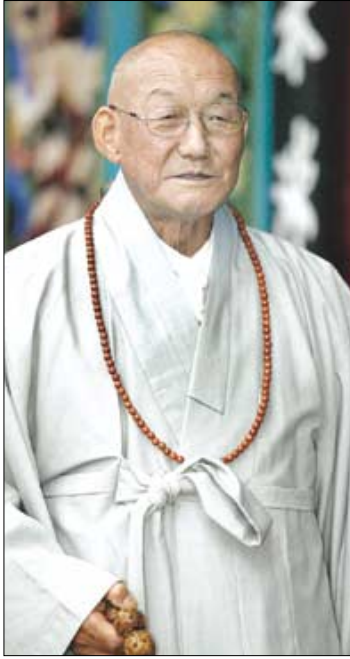
“분래면목을 어디서 봐야 합니까?”

“분래면목을 잊어야 본래 면목을 볼 수 있어. 본래면목에 집착하지 않고 있어버리면 ‘평상심시도심(平常心是道心)’를 얻을 수 있어. 본래면목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아닌 존재고 내가 가설 존재야. 대화하는 그대로가 본래면목인 거지. 부처님이 꽃을 드니 가슴이 미소 지은 까닭이 여기에 있어. 본래면목은 가도 없이 있어.”

“진리비동심상이언(眞理非動實相離言:진리는 움직이지 않고, 실상은 말이 없는 말이다)’이었다. 말 자체는 말이지 진리가 아니기에 말 없는 것이 진리라고 했다.

“물이 진리요 바위가 진리요 산이 진리야.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꽃이 떨어지는 것도 진리야. 산 하대지 모두, 진리 아닌 것이 없어. 법문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자체가 온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전부야 진리야.”

“재가불자들이 ‘평상심시도’를 일상생활에서



‘이해와 인욕’이 재가불자의 생활실천덕목이라고 말하는 일우 스님.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우치지 말고 살아야 해. 평상심시도는 제각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와 인욕’을 갖게 하는 힘이 돼. 가정에서는 가족을 화합하게 하는 힘이 되지.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살리려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면, 언제라도 투쟁과 갈등이 생기지. 재가불자들은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해. 그러면서 생활화 해야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어.”

‘두두물물이 법문’ 알아야

스님의 말씀이 끝나는 순간, 의식이 푼 올라왔다. ‘그럼 깊이 잠들었을 때, 평상심은 어디에 있을까. 또 잠 잘 때에는 화두든 염불이든 마음자리를 어떻게 챙겨야 할까?’

스님은 본래면목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했다.

“잠 잘 때에도 본래면목은 그 속에 숨어 있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체가 본래면목이야. 본래면목은 이 방안에든 가득 차 있어. 잠 잘 때에도, 죽을 때에도, 자네한테도, 나한테도 있어. 본래면목은 저 생각 이생애 죽고 사는데 있는 게 아니라, 없는 데가 없어. 이 우주에 꼭 차 있어.”

스님과 대화를 나눈 지 두 시간이 흘렀을까? 스님은 마지막 당부만 잊지 않았다. 참선과 경전 공부를 함께 하라는 것이었다.

“참선만 하면 마음은 움직이나 말은 제대로 못 하게 돼. 또 경전만 읽으면 입은 있으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돼. ‘선불심(禪佛心) 교불언(敎佛言)’이란 말이 있어. ‘말 없는 마음 없고 마음 없는 말 없다’는 얘기지. 선은 교를, 교는 선을 아우를 줄 알아야. 이처럼 재가불자들도 일과 수행을 둘로 보면 안 돼. 화계 닦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청도/글=김철우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금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해공 스님

인생을 축약해 보면 사람의 상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겠고, 따라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큰 인연이요 복인 것을 알겠다. 출세간의 길을 걷는 스님들의 인연법이나 복이라는 것도 세속과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모든 소유로부터 벗어나 출가를 했으니,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큰 인연이요 복이다.

그런데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을 탐마해 줄 수 있는 도반까지 없다면 얼마나 박복한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좋은 스승이나 도반이 없다고 낙담할 것은 없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올바른 수행관이 중요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량만 있다면 도반을 대신해 탐마를 받게 될 것



그림·문병성

이고, 선지식을 만날 좋은 인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나는 해공 스님과 대중처소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 짙지만 FM으로 중노릇을 하는 스님이다. 보통 외출을 할때 사중이나 다른 스님의 차를 이용해도 되지만, 해공 스님은 자신을 위해 나왔다 되돌아 가는 불필요한 수고를 거부하며,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걸는다.

그렇다고 답답한 친구는 아니다. 대중과 쉽게 어울리며, 또 우스개 소리가 나올 때도 선문답하듯 잘 받아 넘겨 대중 화합에 있어서 그저 ‘만점’인 그런 스님이다.

당시 대중중에 암에 걸린 스님이 있었다.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장기에 상당히 전이되어 수술을 포기했는데 항암 치료라도 해보자는 의견에 따라, 한동안 통원치료를 다녔다.

그러나 본인은 암을 제거하고, 수술 경과가 좋아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 대중은 병자에게 최선을 다하자며 항암에 좋다는 음식이며 녹차를 준비하고, 기공(氣功)을 권했지만, 투병스님의 컨디션에 따라 일회일비(一晝一晝)하며 우울해 했었다.

이렇게 모든 대중이 힘들었지만, 투병 스님 옆

방에 있던 해공 스님의 수고는 가장 헌신적이고 대단했다.

투병 스님은 항암치료를 받고 후유증이나 진통으로 괴로우면, 그러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굳이 보이고 싶지 않더라 애써 피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간병하는 해공 스님이 몹시 마음 아파했다. 해공 스님은, 항상 병자의 자존심이 상할까 조심스러워했다.

밤에라도 열방에서 무슨 기척이라도 들리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상태를 묻고 마사지를 해주곤 했다. 법당에서 기도할 때는 허엿없이 절을 하며 투병하는 스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부처님께 발원했다. 해공 스님의 이러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어느날 새벽, 병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같이 들어가 보니, 숨을 가쁘게 쉬면서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했다. 앓혀 주었더니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어, 해공 스님은 “스님, 힘내세요” 위로를 하면서 새벽 내내 마사지를 해주다 어느

암투병 도반 지극히 간병 늘 타인 배려...신망 두터워

덧 짙어 들었던다. 그러다 깨어보니 자신의 품속에서 투병 스님이 입적해 있었다고 한다. 이후, 자신은 생사라는 것이, 한 호흡지간만 선지식의 말씀이 생생한 화두가 되었고, 더욱 발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한번은 보살 한분이 찾아와 남편이 병이요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병시식을 해달라 하여 해공 스님이 큰 곤욕을 치렀다.

느지막한 시간, 명부전에 시식단을 차려놓고 처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염불을 하는데 2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뒤를 둘러보더니 눈을 부라리며 해괴망칙한 얼굴모습을 보였다. 기본은 좋더라 없지만 구병시식을 중간에 마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또 처사가 갑자기 시식단에 있는 촛대를 휘두르며 벌떡 일어섰다.

해공 스님도 일어나 처사의 행동을 제지하며, 마치 환관의 씨름판이 벌어지듯 얼치락뒤치락 하였다. 나도 뛰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목탁으로 처사의 엉덩이를 몇 차례 때리면서 구병시식을 간신히 마쳤던 적이 있었다.

남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는 해공 스님.

해공 스님의 의모는 부드럽고 심성 또한 어질다. 그러나 구병시식을 할 때 대담하게 대처하는 자세며, 암투병 스님을 위한 성실한 간병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원력있는 수행자 모습을 보여 주는 듯하다.

■ 남양주 우량사 주지

노동선 수행 60년...청도불교 터줏대감

일우 스님은

늦은 오후, 스님은 바스에 감을 연신 담고 있었다. 올 가을 농사지는 감을 신도 30세대에 손수 싸서 보내기 위해서였다. 마치 결혼시킨 자식을 집에 선물을 보내는 아버지처럼, 주섬 주섬 감을 싸고 있었다.

그런 스님은 곧장 보현사 텃밭으로 발길을 옮겼다. 무, 배추, 고추 등을 손수 심어놓은 밭에서 호미질을 했다. 상좌 해묵 스님은, “스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지은 지 벌써 60년째”라고 귀뜸했다.

일우 스님은 농사일을 통한 ‘노동선(勞動禪)’ 수행을 강조한다. 스님이 16살에 적전사로 출가한 이후로, 신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온 까닭이 이 때문이다.

스님의 지역불교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청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스님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지역불교계에서는 일우 스님을 ‘청도불교의 터줏대감’이라고 부른다. 청도에서 태어났고, 청도에서 1950년부터 살고 있어, ‘일우 스님이 청도불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우 스님은 1927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43년 적전사에서 동명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44년 동화사 강원을 수료했다. 이후 동화사 도솔암, 흥도사 극락암 등에서 수행했으며, 보현사 주지, 태고종 중앙총회회 의원, 경북교구총무원 총무원장을 거쳐 1998년 중앙총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태고종 원로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식

스님
침선방식

참선
방식

절방식

건강
좌상방식

지동차
방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정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 침추의 안목을 예방하여 줍니다.
- 정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신화기를 이루어 연신화하여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조 정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파과격차 없습니다. (열선이 없음)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많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음이온수,토르말린,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장 및 원단사용
- 원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에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에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어 및 인증제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강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디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임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전란으로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발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화제가 불교화된 산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라마의 승결이 더해지면서 <임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라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 출간 진행런 이 법회에서는 <임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최업 절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랑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파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강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년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임 보 리 행 론

<임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 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최업 정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발일품, 제 5장 호계 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티데바의 <임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임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라-다람살라-델라-인천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강사원 대법당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동참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라-아그라-비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गर-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라-인천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자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옆)